

16세기 초 晦齋 李彥迪의 自然觀을 통해 본 儒者로서의 특성

윤인현*

<차례>

1. 序論
2. 晦齋의 出處觀과 後代의 評
3. 晦齋의 詩文學을 통해 본 自然觀
4. 結論

〈국문초록〉

본고는 晦齋 李彥迪(1491~1553)의 出處觀과 시문학에 담긴 自然觀을 통해, 16세기 초 조선 성리학의 초석이 된 회재의 삶을 고구해본 것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우리 삶의 모습인 효심과 우애·충절 등도 자연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처관도 삶의 일부로 儒家의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재의 출처관은 儒家의 출처관에 따라 정당했는지, 아니면 입신출세를 위해 아무 때나 벼슬하고자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재의 시문학에 나타난 자연관은, 조정에 出仕하여 곁에서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 그리고 형제에 등으로 표현되었다. 모친의 봉양을 위해 여러 차례 사직서를 올렸으며 고향 근처의 외직을 자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우를 그리워하는 시 30여 편을 짓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한 충절과 우국지정, 그리고 애민정신 등 현실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또한 유배생활 중 저술 활동을 계속한 일도 현실을 잊지 않은 선비정신이면서 유가의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유자는 어디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아쉬운 점은 지나친 戀君과 백성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현실 참여적인 시가 거의 없다는

* 인하대학교 강의교수

것이다. 아마도 16세기 유자의 시문학에 나타난 한계점일 것이다. 조선 후기 유자의 시문학에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적인 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晦齋 李彥迪, 出處觀, 의리, 儒者의 自然觀, 孝心, 友愛, 戀君, 大節

1. 序論

본고는 晦齋 李彥迪(1491~1553)의 글에 나타난 自然觀을 통해, 16세기 초 조선 성리학의 초석이 된 회재의 삶을 고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 전기 儒者가 지녔던 자연관을 儒家의 自然觀의 관점¹⁾에서 살펴보면 16세기 초 조선 성리학이 정착되던 시기 儒者의 특성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儒者란, 孔子의 道에 뜻을 두고 어디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은 인물을 이르는 말이다. 기존 연구에서의 자연관은 우리의 현실적 삶과 동떨어진 채 산수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즐기는 것으로 파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자들의 시문학에 나타난 자연관은 賞自然의 아름다움에 탐닉한다거나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를 묻는 문제를 포함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出處觀이나 人倫의 道를 행하는 것과 산수자연을 보는 관점 등 모두 유가의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삶 같이 절실히 다가오는 자연도 없기 때문이다. 참된 유자들은 자연을 玩賞하는 동시에 삶의 문제를 노래하였다. 따라서 참된 유자라 할 수 있는 회재의 자연관을 통해 그의 유자로서의 특성을

1) <儒家의 自然觀>은 鄭堯一 先生의 이론을 참조하였다. 정요일 선생이 주장한 유자의 자연관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서구식 자연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유자가 지녔던 자연관의 개념으로 회재의 문학을 본 것이다. (鄭堯一, 『儒家의 自然觀』 『語文研究』 제148號,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0, 425~442쪽 참조)

살피는 것은 16세기 초 조선 성리학자의 한 특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동시대 인물인 花潭 徐敬德과 南冥 曹植을 통해, 16세기 초 조선 성리학자의 특성을 살핀 바 있다.²⁾ 그 연장선에서 회재의 글을 통해 조선 전기 유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일부 출처관에 국한되어 있으나³⁾ 그의 출처관이 權道에 들어맞는지는⁴⁾ 재고의 여지가 있다. 퇴계 이후 성리학 이론을 조선 사회에 정립한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회재의 출처관과 그의 대한 후대의 평을 통해 회재와 회재 이후 유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고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선 전기 유자들이 중시한 가치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회재는 24세 때, 과거에 합격하여 조정에 出仕한 이래 1번의 파직과 1번의 유배 생활을 제외하면 약 25년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조선시대의 정치적 파란이 많았던 때로, 戊午士禍(1498) · 甲子士禍(1504), 그리고 회재가 출사했던 己卯士禍(1519), 마지막으로 乙巳士禍(1545) 등 4번의 士禍가 있었다. 을사사화 시에는 判義禁府事의 직을 맡아 추관으로 관리들을 심문하기도 하였으며, 그 공으로 靖難衛社功臣에 錄勳되어 驪城君에 封해졌다.⁵⁾ 이런 混亂期를 살았던 회재이기에

2) 尹寅鉉, 『花潭과 南冥의 學風 및 文學적 특성』, 『시학과 언어학』 제26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4, 63~94쪽. 花潭과 南冥은 處士의 삶을 살면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을 위해 바른 소리를 내는 인물이었다. 그 강도가 화담에 비해 남명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이었다.

3) 金東協, 『李滉이 지은 行狀을 통해 본 그의 出處觀과 人生觀』, 『東方漢文學』 제18집, 東方漢文學會, 2000, 101~119쪽. 회재의 삶을 성공한 삶으로 파악하여, 성현의 학문을 간절하게 탐구하고 힘써 실천하며 바르게 체득한 삶으로 보았다.

최옥녀, 『晦齋 李彥迪의 出處 辭受觀』, 『유교문화연구』 제16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2010, 97~122쪽. 회재의 출처와 사수관은 義를 바탕으로 행했기에 權道에 들어맞는다고 하였다.

4) 최옥녀(2010), 위의 논문, 97~122쪽.

유가의 자연관에 따라 그의 출처관을 살피는 것은 필요하다. 前代의 인물인 회재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혼란기에 儒者로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출처관은 유가의 관점에서 정당했는가? 시문학에 나타난 16세기 초 儒者의 특성은 어떠한가? 등을 살펴보는 것도 意義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회재는 시를 380여 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저술활동도 활발하였다. 21세 때에는 『問津賦』를 지어 공자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였으며, 27세에는 五箴을 지어 자신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극태극논설에 관한 글로 『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를 지어 무극태극설을 비판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무극태극에 관한 논쟁으로 『答忘機堂書』 4편을 남기기도 하였다. 31세에는 『伊尹五就湯論』을 지어 이윤과 공자의 출처관을 대비하기도 하였다. 유배생활 6년 동안에는 『大學章句補遺』(1549) · 『求仁錄』(1550) · 『奉先雜儀』(1550) · 『中庸九經衍義』(1553) 등의 저술을 남겼다.

지금까지의 회재에 대한 연구는, 회재의 시가 도학적 시풍이라는 것⁶⁾ 哲理詩 또는 心性論 등으로 성리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고 한 것들⁷⁾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회재의 자연관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

-
- 5) 默民記念事業會 編, 『晦齋 李彥迪 先生 年表』, 『晦齋 李彥迪의 哲學과 政治思想』, 博英社, 2000, 393~396쪽 참조
- 6) 장도규, 『晦齋 李彥迪의 시세계』, 檀國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89.
장도규, 『晦齋 李彥迪 文學 연구』, 京畿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1994.
장도규, 『이언적 시문학의 도학적 특징』, 『國際言語文學』제15호, 國際言語文學會, 2007, 197쪽.
장도규, 『회재 이언적의 시문학적 지향 일고』, 『한국사상과 문화』 제72집, 수덕문화사, 2014, 33~56쪽.
이두원, 『회재 이언적의 도학사상과 도학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7) 金時杓, 『晦齋 李彥迪 漢詩 研究』, 『漢文學研究』 2, 啓明大學校 啓明漢文學會,

의 본질·자연의 효용·자연 인식의 태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논문⁸⁾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회재의 산수시를 莊子의 영향으로 본 논문⁹⁾도 있었다. 이 밖에도 회재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¹⁰⁾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회재의 글에 나타난 儒家의 自然觀을 통해 그의 출처관과 시문학에 나타난 유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유가의 자연관에 따라 그의 시문학을 연구한 논문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 때나 隱居하려고만 했는가? 또는 아무 때나 벼슬하려고만 했는가? 아니면 儒家의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儒者의 정신에 따라 ‘時中의 道’를 행하여 벼슬할 만

1984, 57~96쪽.

金洛眞, 『晦齋 李彦迪의 心性論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宋載邵, 『晦齋의 自然詩』,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2, 195~218쪽.

李東歡, 『晦齋의 道學的 詩世界』,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2, 164~193쪽.

李東熙, 『晦齋 李彦迪의 생애와 사상』, 『韓國學論集』 19,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92, 143~163쪽.

李哈昊, 『晦齋 李彦迪의 哲理詩에 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93.

송재소, 『회재 이언적의 시』, 『시와 시학』 통권 58호, 시와 시학사, 2005, 184~185쪽 참조.

趙昌奎, 『濂洛風 漢詩로서의 林居詩 研究』: 회재와 퇴계를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제30집, 大東漢文學會, 2009, 225~255쪽.

이정화, 『晦齋 李彦迪의 正心詩 研究』, 『退溪學論叢』 제23집, 退溪學 釜山研究院, 2014, 65~85쪽.

- 8) 金淵浩, 『晦齋 李彦迪의 詩에 나타난 自然觀』,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91.
- 9) 南恩暎, 『晦齋의 山水詩에 나타난 朱子와 莊子의 이중적 영향』, 『연구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7~29쪽.
- 10) 李志慶, 『李彦迪의 政治思想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1999.
李泰鎭, 『李晦齋의 聖學과 仕宦』, 『晦齋 李彦迪의 哲學과 政治思想』, 博英社, 2000, 321~328쪽.

할 때에 베풀하려 했는지 아니면 물러나 은둔만 하려고 했는지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베풀하더라도 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말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그때 제 할 말을 함으로써 참되게 베풀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儒家의 出處觀을 옳게 파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천지만물이 자연이기에, 宇宙의 秩序 內에 있는 것은 모두 自然이며, 그 중 삶의 現實만큼 切實하게 다가오는 자연은 없다. 사람의 마음가짐과 耳目口鼻도 자연의 일부이다. 그 마음과 이목구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는 참된 제 구실을 하는가에 따라 삶의 자세가 정해지는 것이며, 그 사람의 人生觀이나 自然觀이 결정되는 것이다.¹¹⁾ 유가의 자연관은, 그런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관의 연구는, 서구의 자연관으로 자연을 객관화시켜 주체인 나와는 다른 객체로 보고 정복의 대상이 아니면 산수공간으로서의 낭만적 공간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가의 자연관은 착취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때로는 교훈의 대상과 위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의 자연관은 세상 살이에서 인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현실을 잊지 않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戀君之情과 憂國之情, 愛民精神 등도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회재의 자연관을 살펴볼 것이다.

2. 晦齋의 出處觀과 後代의 평

16세기는 士禍라는 정치적 혼란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변동기의 시기이다. 농업 기술의 발달로 休閒法의 제약이 사라지고 連作常

11) 鄭堯一(2010), 앞의 논문, 425~427쪽 참조.

耕農法이 실현되어, 생산량이 증대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5일장의 형태가 나타나 각 지역의 市場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상업의 발달로 이어졌다. 농업과 상업의 발달은 일반 소농민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었다.¹²⁾ 이런 시기에, 前代에 있었던 향촌 사회의 안정책을 위한 향약 보급 운동을 통한 실천보다는 국왕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정치의식을 가진 회재가 문과별시에 합격하여 出仕를 하였던 것이다. 전대의 향약보급운동은 사림파인 김종직부터 이어져 온 실천운동이었다. 그러나 회재는 이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己卯士禍로 향약의 출처인 『小學』이 금서로 내몰리기까지 하였기 때문이다.

회재의 出處觀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자. 회재가 21세 되던 해(1511) 쓴 『問津賦』에는 그의 출처관에 관한 내용이 있다. ‘問津’은, 『論語』, 『微子』篇, ‘耦耕’章에 실려 있는 것으로 공자가 뜻을 펼치기 위해 轍環天下 때의 관한 내용이다. 葉 땅에서 蔡로 가던 공자는 子路를 시켜 밭갈이하는 長沮와 桀溺에게 나루터가 어디인지 물어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장저와 곽익이 ‘사람을 피하는 선비(공자)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피하는 자신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니, 공자가 ‘세상에 道가 있다면 나 공자는 세상을 변역 시키는데 참여하지도 않았다’¹³⁾고 답변함으로써 현실을 잊지 않는 마음을 보였다. 회재도 『문진부』에서 공자의 일화를 통해 어지러운 세상을 바꿔 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공자의 고심과 간절한 뜻을 드러내려 하였다.

12) 李泰鎮, 『李晦齋의 聖學과 仕宦』, 『晦齋 李彥迪의 哲學과 政治思想』, 博英社, 2000, 322~323쪽 참조

13) 『論語』, 『微子』篇, ‘耦耕’章 “滔滔者天下皆是也, 而誰以易之. 且而與其從辟人之士也, 豈若從辟世之士哉.” … “鳥獸不可與同羣,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丘不與易也.”

“강가에 닿아 보니 나루터는 안 보이고, 자욱하게 안개 덮인 물만 아득하였도다. 마침내 말 멈추고 서성이며 바라보니, 건너려고 하여도 다리가 없도다.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장저와 걸익 보고 자로 시켜 나루터를 물어보게 하였더니, 나루터가 어딘지는 알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과 모욕을 만났도다. 저들은 본디 세상 피해서 살며 홀로 성인 비판하고 스스로를 옳다 하니 저들이 어찌 알랴. 군자가 벼슬함은 義를 행하기 위함을 알겠는가? 어찌 세상의 도가 어두운 것을 싫어하지 않았겠는가? 뜻을 펴지 못하면 마음을 거두어 간직할 줄을 몰랐겠는가? 다만 짐승들과 무리지어 살 순 없으니 내가 홀로 세상 떠나 무엇을 하겠는가? 더구나 온 천하가 도탄에 빠졌는데 어떻게 나 한 몸만 선하게 하겠는가?”¹⁴⁾

회재의 출처관이 잘 드러난 글이다. 공자가 무도한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것은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張子[張載]의 주에 “성인께서 仁을 행하시는 방법은 무도한 세상이라고 천하를 단정하여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¹⁵⁾라고 한 것처럼, 회재도 공자와 같은 출처관으로 혼자만 선하게 살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제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유가의 적극적인 현실관이라 할 수 있다.

회재가 24세(1514, 중종9년) 지은 한시에도 출처관을 밝힌 곳이 있다.

한 평생의 뜻 경전을 연구하는 데 있었고, 平生志業在窮經,

14) 李彥迪, 『晦齋先生集』 卷6, ‘賦’, 『問津賦』. “偶臨河而迷津, 渺煙波之蒼茫. 遂停驂而延佇, 蹇欲濟而無梁. 遇沮溺之耦耕, 乃使問其津渡, 既不聞其指示, 反逢彼之讖侮. 彼固避世之士兮, 獨非聖人而自是, 彼焉知君子之仕兮, 乃所以行其義也. 豈不厭世道之幽昧, 豈不知可卷而懷之, 惟鳥獸不可與同群, 余獨離世而何爲. 矧今天下之溺矣, 其敢獨善於己.”

15) 『論語』, 『微子』篇, ‘耦耕’章에 대한 ‘集註’의 張子 주석 “聖人之仁, 不以無道, 必天下, 而棄之也.”

구구하게 名利 따윈 추구하지 않았노라.	不是區區爲利名.
明善 誠身 공맹을 배우기를 희망하고,	明善誠身希孔孟,
治心 存道 程朱의 가르침을 사모했지.	治心存道慕朱程.
벼슬하면 충의로써 세상을 구제하고,	達而濟世憑忠義,
물러나면 산속으로 돌아가서 수양할 뿐.	窮且還山養性靈.
힘한 길 어려움 어찌 생각하리오,	豈料屈蟠多不快,
한밤중에 일어나서 난간에 기대노라.	夜深推枕倚前楹 ¹⁶⁾

위의 시는 별시에 급제하고 경주 양좌리에 돌아와 있을 때 지은 것이다. 한 평생의 뜻은 경전의 뜻을 공부하는데 있지 헛된 명리를 추구하는데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 정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존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벼슬자리에 나아간다면 세상을 충의로써 구제하고 물러나면 산림에서 자기 수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수양은 또 다른 출사를 대비한 자세이다. 『論語』, 「述而」篇, 「用行」章에 “써 주면 행하고 버려지면 몸을 감추어 숨는 것은, 오직 나와 내가 그런 점이 있다.”¹⁷⁾라고 하여, 세상이 제 뜻을 써 주면 道를 행하고 제 뜻을 써 주지 않아 버려지게 되면, 자신의 뜻을 숨길 줄 아는 유자의 현실 대응을 말한 것이다. 이는 뜻을 숨기고 수양하고 있다가도 위정자가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제 뜻을 써 준다면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언제나 출사할 수 있다는 유가의 적극적인 자세이면서 출처관을 보여 준 것으로, 終身토록 處士의 삶을 살았던 花潭과 南冥의 삶과는 차이가 나는 점이다.

회재가 27세 되던 해(1517) 설날 아침에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 5箴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敬身箴」에서 그의 출처관을 살필 수 있다.

16) 李彥迪, 『晦齋先生集』 卷1, ‘古今詩’, <山堂病起>(산당에서 병을 앓고 나서)

17) 『論語』, 「述而」篇, 「用行」章 “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 有是夫.”

“진퇴와 주선은 반드시 도리에 맞도록 하고 출처와 행장은 오로지 의로써 결단하리라. 부귀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빈천에도 변치 않는 굳은 절개로 중심 잡고 우뚝 서서 오직 도에 의지하리라. 이를 일러 敬身이라 하는 것이니 자기 몸을 욕되거나 훼손치 않고 남아 주신 부모에게 욕 끼침 없이 온전하게 생을 마치고 돌아가리라.”¹⁸⁾

위의 제시문은 회재가 설날 아침에 출처의 소신을 義로써 행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부귀에도 흔들리지 않고 빈곤에도 변치 않는 절개로 자신의 몸을 닦아 남아주시는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道에 의지하여 경신하면서 생을 마칠 것을 다짐한 것이다. 『周易』, 『傳』에 “나아가고 물러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을 반드시 도로써 한다.”¹⁹⁾라고 한, 程子の 말씀이 있다. 진퇴의 일은 모두가 道에 들어맞게 행해야 된다는 뜻이다. 회재 역시 출처와 관련된 행위는 道에 맞게 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孟子』, 『離婁』章句(下)에 “그러므로 군자는 평생토록 자신의 인격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여도 눈앞에 닥친 우환 등을 근심하지는 않는다.”²⁰⁾라고 하여, 군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회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중종 14년(1519) 사림과 조광조는, 중종반정 공신 76명의 공신삭탈을 건의했다가 오히려 중종과 훈구파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신진사류들과 함께 숙청되었다. 회재는 이 기묘사화 때 조부의 喪을 당하여 낙향해 있어

18) 李彦迪, 『晦齋先生集』 卷6, ‘元朝五箴’, 『敬身箴』. “進退周旋, 必於理合, 出處行藏, 一以義決. 富貴不動, 貧賤不移, 卓然中立, 惟道是依, 是日能敬, 不辱不虧, 無忝所生, 庶全而歸.”

19) 『周易』, 『乾』卦, 『傳』 “進退動息, 必以道.”

20) 『孟子』, 『離婁』章句(下) “是故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也.”

禍를 입지 않았다. 기묘사화 2년 후, 중종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조정에 나아갔으며, 그때 탕 임금과 걸 임금 사이를 5번 오간 이윤과 공자를 대비한 『伊尹五就湯論』을 지었다.

“탕이 현인을 얻어 자신을 섬기게 하지 않고 걸을 섬기게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사랑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성인의 지성스럽고도 간절한 뜻이었다. 공자가 어찌 걸에게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아가서 섬기되, 음란하고 어지럽고 포악한 행실을 끝내 바꿀 수 없으면 떠나서 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공자도 이와 같이 했겠지만, 다만 구차하게 탕을 따르려는 의도로 여러 차례 나아가기를 이렇게 번독스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²¹⁾

위의 제시문은 회재가 31세 때 지은 것으로, 그의 출처관이 잘 드러났다. 『孟子』, 「萬章」章句(上), 「告子」章句(下)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윤과 공자의 출처관을 대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탕이 이윤을 폭군인 걸왕에게 보내 벼슬하게 한 것은 나라에 대한 근심과 백성에 대한 애민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사에 참여해도 그 나쁜 정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윤처럼 번잡스럽게 5번씩 할 것이 아니라, 공자처럼 단번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가 “公山과 佛盼(필힐)의 부름에도 모두 가려 했지만 晷嬰이 안 된다고 하자 썩던 쌀을 건져 떠났고, 臑肉이 이르지 않자 면류관도 벗지 않은 채 떠났으며, 衛靈公이 한 번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자 이튿날 바로 떠났다. 공자가 기미를 보고는 바로 떠나고 하루도 지체

21) 李彥迪, 『晦齋先生集』 卷5, ‘雜著’, 『伊尹五就湯論』, “湯得賢不自有而使之事桀, 是聖人愛君憂民至誠惻怛之意也. 孔子安得不得以就乎. 就而事之, 其淫虐昏暴, 終不可回也. 則去而歸於湯, 孔子亦不過如斯而已, 但不肯苟徇湯之意, 至於累就如之瀆矣.”

하지 않은 것은 봉황이 천 길의 하늘 위를 날아 더위잡고 오를 수 없는 것과 같았다.”²²⁾라고 한 것처럼, 회재는 聖君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시에는 단번에 행동화하여, 물러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자는 의에 따라 의도함이 없이 세상을 구하고자 했는데, 이윤은 의도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공자와 이윤의 차이라고 하였다. 공자와 같은 경지를 ‘無爲’의 경지라 하였다.²³⁾ 『論語』, 『微子』篇, 『逸民』章에 “꼭 이래야 된다는 법도 없고 저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법도 없다.”²⁴⁾라고 한 것처럼, ‘無爲’는 ‘道에 들어맞게 행하되 때에 따라 저울추처럼 융통성 있게 행하는 ‘權道’ 곧 ‘時中’으로 ‘中庸의 道’라고 할 수 있다.

유자의 출처관은 어디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는다. 程子도 “성인께서는 감히 천하를 잊는 마음을 두시지 않으셨다.”²⁵⁾라고 하여, 孔子 · 孟子 같은 성인들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한때도 잊지 않으며 세상을 바로잡고 밝히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재도 정자의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한 면이 있다. 『문진부』에 “성인은 세상 잊은 적이 없어, 하룻밤을 한 곳에서 머물지 않았도다.”²⁶⁾라고 한 것과, 그의 시 <直薇垣>(미단[사간원]에서 숙직하다)에서 “물시계가 사경 지나 오경을 알리는데, 베개 가에

22) 위의 책 “孔子於公山佛盼之召，皆欲往，而晏嬰不可則接淅而行，膾肉不至則不脫冕而行，衛靈公一視蜚雁則明日遂行。其見幾而作，不俟終日，有如鳳凰翔于千仞，不可攀也。”

23) 李彥迪, 『晦齋先生集』卷5, 『雜著』, 『伊尹五就湯論』 “蓋孔子無情而伊尹有意, 有意故不能無爲之之迹, 而與天地爲一矣. 豈非能大而未至於化者歟.”(공자는 의도함이 없었는데 이윤은 의도함이 있었으니, 의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자 한 형적이 없이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어찌 위대하되 화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24) 『論語』, 『微子』篇, 『逸民』章 “無可無不可”

25) 『論語』, 『微子』篇, 『耦耕』章에 대한 ‘集註’의 程子の 주석 “聖人, 不敢有忘天下之心.”

26) 李彥迪, 『晦齋先生集』卷6, 『賦』, 『問津賦』. “然聖人未嘗忘天下, 席不煖於一夕.”

찬 달빛이 창을 뚫고 들어오네. 종묘사직 안위에 마음이 온통 쏠려, 밤새 도록 말뚝말뚝 잠을 못 이뤘노라.”²⁷⁾라고 한 것 등에서 출처관에 따른 그의 현실관을 읽을 수 있다. <직미단>은 회재가 41세 되던 해인 1531년 (중종26)에 지은 시이다. 당시 회재는 사간원[미단]의 사간이었는데, 김안로가 예전 경주부윤으로 있을 때, 일 처리와 몸가짐이 소인의 情狀이 있음을 알고 김안로의 敍用을 반대하였다.²⁸⁾ 그 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안로의 入朝는 이루어졌고, 김안로의 起用을 반대했던 회재는 성균관 사예로 좌천되었다가 얼마 후 탄핵받아 파직되어 낙향하게 되었다. 중종의 부름을 받고 재출사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다.

꿈속에 입궐해서 편전에 입시하여,	夢入君門侍燕閑,
성상 앞에 나아가서 성심으로 아뢰었다.	披襟啓沃近天顏.
깨어 보니 예전처럼 빈산에 누워 있고,	覺來依舊空山臥,
창밖에는 쓸쓸하게 달빛이 차다.	窓外蕭蕭月色寒.

자연 속에 자유롭게 노니는 게 즐겁지만,	優游山海樂雖深,
노년에도 나라 은혜 갚으려는 뜻 지녔네.	皓首猶存報國心.
온화하신 성상에게 지척에서 충언해도,	咫尺溫顏獻忠款,
감동함이 도리어 상림(재상)에 부끄럽네.	感通還自愧商霖. ²⁹⁾

27) 李彥迪, 『晦齋先生集』 卷1, ‘古今詩’, <直薇垣>. “玉漏丁東報五更, 枕邊涼月透窓明. 關心宗社安危事, 耿耿終宵夢不成.”

28) 李彥迪, 『晦齋先生集附錄』, “行狀” 『晦齋李先生行狀』, “先生曰, 安老尹東京時, 熟觀其處心行事, 眞小人情狀也. 此人得志, 誤國必矣.”(선생[회재]가 말하기를, ‘안로가 경주부윤으로 있을 때에 그 마음가짐과 일 처리함을 자세히 보니 참으로 소인의 정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소원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참조

29) 李彥迪, 『晦齋先生集』 卷2, ‘律詩, 絕句’, <記夢>(꿈을 기록하다)

위의 시에 주를 달기를, “을미년(1535, 중종30) 겨울 10월 11일에 내가 산장에 있었다. 꿈에 편전에 입시하였는데, 성상께서 온화하고 맑은 얼굴로 자못 도타이 위로해 주셨다. 신하들이 물러나올 때 내가 홀로 御座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병든 모친이 멀리 있어서 오래 조정에 머물 수가 없기에 곧 사직하고 떠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 주상이 실망하며 손을 잡았는데 아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내가 이어 아뢰기를 “옛사람이 ‘처음은 누구나 잘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드물다.’(『시경』 「탕」에 나오는 구절)라고 하였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매사를 삼가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한없이 큰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주상께서 기뻐하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마침내 재배하고 물러 나왔는데, 문득 깨어나 보니 몸은 산방에 누워 있고 서늘한 달빛이 창문에 가득하였다. 일어나서 멍하게 앉아 있다가 마침내 절구 두 수를 지었다.”³⁰⁾라고 하여, 시를 지은 까닭을 밝혀 놓았다.

낙향 4년째인 45세 때 지은 시로, 자연 속에서 산수의 경치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출사하여 임금 곁에서 충언을 올리는 신하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감통함이 도리어 상림에 부끄럽네.”의 ‘商霖’은 殷나라 高宗이 꿈에 傅說(부월)을 보고, 그 모습을 그려서 수소문하여 찾아낸 뒤 相臣으로 삼고, “만약 큰 내를 건너게 되면 너를 배와 노로 삼고, 큰 가뭄이 들면 너를 장맛비로 삼으리라.”³¹⁾라고 했던 데서 나온 고사로, 훌륭한

30) 위의 책, <記夢>의 주. “乙未冬十月十一日, 余在山莊. 夢入侍便殿, 天顏溫粹, 慰籍頗厚. 臨退, 余獨進俯伏上前啓曰, 臣有病母遠在, 不得久留朝, 行將辭去, 上愜然執手, 有眷戀之意. 余仍啓曰, 古人云靡不有初, 鮮克有終. 願殿下慎終如始, 則福祚無窮矣. 上怡然嘉納, 遂再拜而退, 忽覺身臥山房, 涼月滿窓. 起坐愴然, 遂書
■絕.”

31) 『書經』, 『說命』(上). “若濟巨川, 用汝作舟楫, 若歲大旱, 用汝作霖雨.”

제상을 뜻한다. 곧 자신과 국왕 중종의 마음이 통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뵈고 충언을 올리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戀君之情이다. 그런데 자신은 부열만큼 훌륭한 신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였다.

후학들은 회재의 출처관을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자. 먼저 退溪 李滉(1501~1570)은 회재의 행장에서 “出處大節과 忠孝일치에 모두 근본 한 바가 있다.”³²⁾라고 평하였다. 곧 모든 출처가 大節에 맞으며 집안에서 효자가 조정에 나아가면 충신이 된다는 것이다. 회재 스스로 밝힌 출처관과 퇴계의 평처럼, 그의 출처관은 대절에 모두 들어맞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유가의 출처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栗谷 李珥(1536~1584)는 『석담일기』에서 “경세제민의 큰 재질과 입조의 큰 절개는 없었다.”³³⁾라고 하여, 회재의 출사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을사사화 때에 언적은 이면으로 선비들을 구하기 위해 주선하고자 했고, 직언으로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권간들의 협박으로 추관이 되어 올바른 사람들을 신문하여 공신이 되었다. 광순은 신문당할 때에 추관이 된 이언적을 쳐다보고 한탄하기를, ‘우리가 복고(이언적의 자)의 손에 죽을 줄이야 어찌 알았으리요’라고 하였다. 언적이 후회하여 차차 권간들에게 이의를 내세워 마침내 죄를 얻어 공훈을 삭탈당하고 멀리 귀양가 죽었다.”³⁴⁾라고 하여, 그의 처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리고 율곡은 회재에 대하여 한 번 더 결론내리기를

“이문원(이언적의 시호)은 다만 충효한 사람으로 옛 전적을 많이 읽고 저

32) 李滉, 『退溪集』 卷49, 『晦齋先生行狀』. “出處大節 忠孝一致 皆有所本也.”

33) 李珥, 『石潭日記』(上), 『隆慶元年丁卯』. “無經濟大才及立朝大節.”

34) 위의 책. “乙巳之難, 彥迪欲周旋陰救士類, 故不能直言匡救, 而迫于權奸, 作推官以考訊善類, 至於錄功. 郭珣被刑訊, 仰見彥迪作推官, 乃嘆曰, 安知吾輩死於復古之手乎.(復古彥迪字也.) 彥迪後悔, 稍與權奸立異, 竟得罪削功遠竄而卒.”

술을 잘 하였을 따름이다. 부정한 여색을 멀리하지 못했고, 조정에 나와서는 도를 행할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을사사화 때에 직인으로 항거하지 못하고 누차 추관이 되어 거짓 공훈에 參錄(참록)되었다. 결국 권간들에게 죄를 얻어 역시 부끄러운 일이니, 어찌 도학자로 추존할 수 있는가? 아! 문원이 비록 도학자란 칭호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의 현철함은 세상에 흔히 있는 존재는 아니니 이 사람이 세상에 용납되지 못했음은 어찌 애통하지 않은 일인가?”³⁵⁾

라고 하였다. 고서를 다독하였으며 글도 잘 지었다고 하면서도 을사사화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묻는 데는 변함이 없다. 율곡이 위의 인용문에서 “부정한 여색을 멀리하지 못하고”는 南冥 曹植(1501~1572)이 『解關西問答』³⁶⁾에서 밝힌 회재와 그의 아들인 允仁과의 관계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회재가 첫 벼슬을 얻어 경주 州學의 교관으로 있을 적(1515, 중종10년, 25세)에 官婢 石氏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李允仁이다. 그런데 회재가 서울로 영전되어 갈 때, 석씨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때 경상도 水使로 부임한 曹胤孫이 그 관비를 데리고 가 살았는데, 7달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훗날 이 아이로 인하여 조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정도였다. 남명은 『解關西問答』에서 이전인의 출생과 회재의 출처 관 등을 비판하였다. “나는 일찍이 복고(이언적의 자)가 성현의 도를 배웠으면서도 알아서 깨닫는 지경에 이르는 처지의 소견이 분명치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당시에는 대운 소운의 싸움이 곧 일어날 듯하여 나라의 형편이 위태롭기 그지없다는 것을 어리석은 아낙도 알고 있었다.

35) 앞의 책. “若李文元則只是忠孝之人，多讀古書善於著述耳。觀其居家，不能遠不正之色，立朝不能任行道之責。乙巳之難，不能直言抗節，乃至累作推官參錄僞勳。雖竟得罪，類亦泚矣，烏可以道學推之耶。噫文元雖不可當道學之名，而其賢則世不可多得，斯人之不容於世，豈不可痛惜哉。”

36) 曹植, 『南冥集』 卷2, 「雜著」, 「解關西問答」 참조.

그런데도 복고는 낮은 관직에 있을 적에 일찍 물러나지 않고 있다가 중망을 입어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낮은 땅에 유배되어 죽고 말았으니, 이는 明哲保身の 식견에는 모자람이 있었던 듯하다.”³⁷⁾라고 하여, 도가 서지 않은 시기에 벼슬한 회재는 명철보신의 식견도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하였다. 이는 남명이 을사사화 때 친구인 郭珣과 宋鱗壽 등을 처벌할 때 회재가 추관이 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기는 하지만, 참된 유자의 관점에서 보면 유가의 출처관에 벗어난 처사라 할 수 있다. 율곡도 회재의 부도덕함과 을사사화 때 회재가 추관이 되어 올바른 사람을 심문한 사실을 비난하면서, 그 일로 인해 공훈이 되어다가 삭탈되었지만, 오히려 이 같은 일은 권간들에게 죄를 얻은 꼴이 되었다고 하였다. 역시 을사사화 때 추관이 된 것과 직언하지 못한 회재의 행적을 비판하였다.

來庵 鄭仁弘(1536~1623)도 상소문에서 회재의 출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정인홍이 상처하여 …(중략)… 이언적과 이황이 지난 날 가정 을사년(인종 1년, 1545)과 정미년(명종 2년, 1547) 사이에 혹은 극도로 높은 벼슬을 하였고, 혹은 청직과 요직을 지냈으니, 그 뜻이 과연 벼슬할 만한 때라고 여겨서입니까?”³⁸⁾

제시문에서 래암이 주장한 것처럼, 인종이 즉위한 후 8개월 만에 승하하고, 12살의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攝政을 하게 되었다. 이 무렵 회재는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1545년 인종 1년 3월에 다시 출사하였다.

37) 曹植, 『南冥集』 卷2, 『雜著』, 『解關西問答』 “嘗恨復古學聖賢之道, 而致知之見不明, 當時大小尹之禍, 朝夕必發, 國勢抗捏, 愚婦所知, 猶不早退於官卑之日, 以至於負重而不可解, 流死異域, 恐虧於明哲之見也.”

38) 『光海君日記』 卷39, 광해 3년(1611), 3월 병인

그리고 7월에 인종이 승하하자 명종이 즉위한 후, 인종의 외척 大尹 윤임을 제거하기 위해 명종의 외척으로 小尹인 윤희원이 밀지를 받고 회재와 함께 문정왕후와 명종을 忠順堂에서 親見한 일, 곧 회재가 忠順堂 引見에 참여한 일이 있었다. 이때 회재는 직언하지 못한 채 관리들을 심문한 결과 靖難衛社功臣과 驪城君에 봉해졌다. 이런 일련의 사정을 감안하여 래암은 출사하는 시기가 마땅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왕의 외척들과 권세자들이 세력 싸움을 하는 시기로, 道가 서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다. 유가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출사의 조건은 천하에 도가 있고 본인 또한 出仕할 의사가 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천하에 언제나 도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도가 없으면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속세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참된 속뜻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으며 세상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유자가 지녔던 출처관이기도 하였다. 혼란한 시기에 잘 못 출사하여 자신의 능력에 감당하지 못할 사건에 처해 오히려 세상일을 혼란에 더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래암은 도가 서지 않은 시기기에, 회재가 벼슬할 때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西厓 柳成龍(1542~1607)도 회재에 대해서 평하였다.

“회재는 도학으로서 세상에 이름이 나서 백대의 儒宗이 되었다. 그의 수립한 卓然奇偉함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다만 입각한 시종만 가지고 말한다면 평생에 도를 굳게 잡아 행하여 행실에 굴곡이 없었다. 비록 풍파의 蕩激한 중에 처하여서도 흔들리거나 겁내지 않고 본말이 일치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³⁹⁾

39) 柳成龍, 『晦齋先生文集』 卷14 附錄, 「恭書御札答館學諸生疏後」, “晦齋以道學名世, 爲百代儒宗. 其所樹立卓然奇偉, 姑置不論, 今但就其立朝終始而言之, 平生直道而行, 無所回互. 雖處風波蕩激之中而不震不悚, 本末一致, 無纖毫可疑.”

서에는 회재가 백대의 유종이 되었으며, 평생의 도를 잡고 있어 행실에 굴곡이 없을 뿐 아니라 풍파의 세월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였다. 퇴계의 제자라서 그런지 퇴계가 회재의 행장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

『孟子』, 『公孫丑』章句(上)에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시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셨다.”⁴⁰⁾라는 구절과 『孟子』, 『萬章』章句(下)에 “벼슬하지 않고 處할 만하면 處하셨으며,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셨다.”⁴¹⁾라고 한 구절들은, 맹자의 출처관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회재도 맹자의 출처관처럼, 바른 소리를 하다 파직되기도 하였다. 무도한 현실이라고 해서 세상을 등진단든지 몸을 감추고 은둔하는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의 뜻을 써 주면 출사하여 자신의 뜻을 펴고자하였으며,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권신들에게는 소극적이거나 반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를 비롯해 신진사류들이 숙청된 을묘사화 후, 재등용된 일과 율곡이나 래암이 지적했던 것처럼 道가 서지 않았던 시기에 직언하지 못했던 점 등은 유자의 의리 관점에서 회재의 출처관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종에 의해 재등용된 후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10년 만에 파직되었지만, 그 시간이 길다. 10년 동안 개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종 승하 후, 명종 등극과 을사사화 때의 그의 행적들은 참된 유자들이 지녔던 처세관과는 차이가 난다. 인종 사후, 명종 등극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충순당 인견 등은 외척의 조정 개입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소윤 윤원형에 의한 반대파 관리들의 심문, 그로 인한 공신 녹과 여성군에 봉해짐 등은 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일어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40) 『孟子』, 『公孫丑』章句(上)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41) 『孟子』, 『萬章』章句(下) “可以處而處, 可以仕而仕.”

3. 晦齋의 詩文學을 통해 본 自然觀

지금까지 우리는 自然이라 하면 자연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山水 자연만이 자연으로 인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儒家의 自然觀은 우주의 질서 내에 있는 자연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사도 자연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삶의 현실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자연은 없기 때문이다. 儒者들이 문학 작품에서 노래한 자연은 이런 삶과 관련된 자연이다. 자연에서 본성을 찾고자 하는 태도도 儒家의 自然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삶의 모습이 배제된 채 賞自然의 아름다움만 노래한 것을 자연관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서구사상의 영향인 개화기 이후의 서구식 문학 이론인 것이다. 전통적인 동양적 자연관은, 사람이 天體의 運行 곧 天道를 본받아서 人道를 지극히 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이 곧 우리의 삶인 것이다. 삶과 동떨어진 자연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유가의 자연관을 살핀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노래하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의 자연관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들 모두가 자연이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폭력으로 희생을 당한 뉴스를 접하고는 안타까워한다든지 반대로 장성한 아들이 연로한 부모를 모시지 않고 방치한 소식을 접했을 때는 綱常의 道가 무너진 현실에 마음 아파하는 것도 모두 현실이면서 자연인 것이다. 그래서 개화기 이후 도입된 서구식 자연관의 관점으로 조선시대 유자들의 자연관을 파악하는 일은, 관점의 차이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論語』, 『憲問』篇, ‘石門’章에 대한 ‘集註’의 胡氏 주석에 “성인께서 천하를 보시는 데에는 가히 할 만하지 못한 때가 없으셨다.”⁴²⁾라고 한 것

42) 『論語』, 『憲問』篇, ‘石門’章에 대한 ‘集註’의 胡氏[胡寅]의 주석 “聖人之視天下, 無不可爲之時.”

과, 朱子가 『논어』 집주에서 밝힌 “군자가 위태로운 일을 보고서 목숨을 내줄 처지인 곧 위태로운 나라에서 벼슬하는 자로서는 벼슬을 버리고서 떠나야 할 이치가 없거니와, 바깥[남의 나라]에 있는 경우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야 될 법한 일일 것이다.”⁴³⁾ 등과 같이, 성인과 군자 등은 어두운 세상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세상을 바로잡고 밝히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태도가 유가의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禮記』, 『儒行』篇에 “도가 있으면 제 몸을 나타내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 때가 아니면 나타내지 않는다.”⁴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유가의 적극성이 잘 드러난 표현이다. 道가 선 나라에서는 당연히 출사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몸을 숨는다’는 뜻은 은둔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 참뜻을 숨긴다는 뜻이다. 이런 儒者의 태도가 선비정신이면서 유가의 자연관이다. 유가의 자연관을 따르면, 개인의 인간사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사도 자연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儒者 개인의 충효사상은 물론 형제애와 효심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유가가 바라보는 현실은 절실한 자연일 수밖에 없고, 그 암담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진정한 유가의 자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가의 자연관은, 세상살이에서 인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현실을 잊지 않는 마음까지 포함되었던 것이다.⁴⁵⁾ 이런 관점에서 회재의 자연관도 살펴볼 것이다.

43) 『論語』, 『泰伯』篇, 『篤信』章에 대한 ‘集註’의 朱子의 주석 “君子, 見危授命, 則仕危邦者, 無可去之義, 在外, 則不入, 可也.”

44) 『禮記』, 『儒行』篇 “有道則見, 無道則隱, 非時不見.”

45) 윤인현, 『松江 鄭澈의 漢詩에 나타난 作法과 儒者의 自然觀』, 『한국고전연구』 3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195쪽 참조.

산사에서 분구하며 오래도록 집에 못 가, 아침저녁 어머니를 그리는 맘 간절하네. 필마로 그대 나를 찾아 주어 기쁘구나. 산길에 구름 짙고 또한 무척 험준한데.	分灸僧家久未歸, 不堪晨夕戀慈闈。 喜君匹馬勤相訪, 山路雲深更嶮巖。 ⁴⁶⁾
---	---

회재 28세 때 作으로, 아우인 언팔이 병이 나자, 山寺에서 분구의 아픔을 느끼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 쯤에, 험준한 산길을 마다하고 찾아 준 요경에게 고마움을 표한 시이다. '분구'는, 형제가 병이 났을 때 그 아픔을 함께한다는 뜻으로, 형제간의 우애가 매우 각별했던 宋나라 태조가, 동생 태종이 병이 나서 땀을 뜨자 자신도 땀을 떠서 그 고통을 느꼈던 고사⁴⁷⁾에서 온 말이다. 여기서는 동생이 병을 앓고 있어서 함께 머물며 병간호를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형제는 부모님의 끼치신 몸을 받고 태어난 동기이다. 형제가 아프면 마치 우리 몸의 일부가 아픈 것과 같다. 그래서 아우의 아픔을 형인 나도 나누고 싶은 것이다. 이런 형제에도 유가의 자연관인 것이다. 人倫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늘 남쪽 한강 북쪽 아득하게 길이 먼데, 언제나 기러기를 따라갈 수 있으려나. 먼 이별에 벼슬살이 좋은 줄도 모르겠고, 돌아가고픈 마음에 해가 길어 괴롭구나. 지붕 위로 새 대나무 응당 쪽쪽 뻗어가고, 울타리 밑 어린 솔은 무성해졌으리라. 격문 받고 기뻐하고 싶은 뜻을 못 이루어, 아침마다 귤 옆에서 애간장이 끊어진다.	天南漢北路茫茫, 旅雁何時更着行。 遠別不知官爵好, 思歸苦覺歲年長。 屋頭新竹應森秀, 籬底稚松想就荒。 一檄動顏猶未遂, 朝朝腸斷禁城傍。 ⁴⁸⁾
---	---

46) 李彦迪, 『晦齋先生集』 卷1, '古今詩', <贈堯卿>(요경에게 주다)

47) 『宋史』 卷3, 『太祖本紀』2

아우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다. 위의 시 “언제나 기러기를 따라갈 수 있으려나. 먼 이별에 벼슬살이 좋은 줄도 모르겠고, 돌아가고픈 마음에 해가 길어 괴롭구나.”의 3구는, 蘇軾의 시 <病中聞子由得告不赴商州三首>의 첫수 가운데 2구~4구와 일치한다. 소식의 시가 동생 蘇轍을 향한 애절한 형제애를 담은 것으로, 회재도 당시 정황이 유사했기 때문에 그런 지 그대로 가져다 썼다. 남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표절이라 하여 혹독한 비난을 받는다. 그런데 회재의 경우는 그 아우에 대한 생각이 절실한 것이 소식과 같아서 오히려 시적 감동을 주었다. 회재가 알고 썼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치하게 된 偶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식 못지않은 형제애를 느끼게 한다.

“격문 받고 기뻐하고 싶은 뜻을 못 이루어”는, 後漢의 毛義가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긴다는 소문을 듣고 張奉이 그를 흠모하여 찾아갔을 때, 모의를 ‘현령으로 삼는다’는 격문이 오자 모의의 얼굴에 좋아하는 기색이 가득하였다. 이런 모습을 본 장봉은 그를 천하게 여기고 그곳을 떠났다. 그 뒤에 모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벼슬자리를 내던지고 상복을 입었으며, 여러 차례 불러도 나가지 않았다. 장봉이 그제야 모의가 지난날 모친을 위해서 벼슬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을 탄식하였다는 고사⁴⁸⁾이다. 여기서 회재 자신이 모친을 봉양할 수 있도록 지방관에 보임되고자 하는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렇듯 형제애를 노래한 것과 모친을 그리워하는 것도 유자의 자연관이다.

다음 시는, 회재가 31세이던 1521년(중종16)에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20수의 7언 절구로, 8월 6일 집을 나선 뒤 10일에 경주를 출발, 23일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의 일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48) 李彥迪, 『晦齋先生集』 卷1, ‘古今詩’, <寄舍弟子容>(아우 자용에게 부치다)

49) 『後漢書』 卷39, 『劉趙淳于江劉周趙列傳』

살아오며 몇 번이나 험난한 일 겪었던가?	身世曾經幾險艱,
이제야 한양 땅에 이르러서 기뻐하네.	如今始喜達長安.
부끄럽게 우리 임금 聖君 만들 술법 없이,	致君堯舜慙無術,
다만 평생토록 한 조각 충심만을 품었네.	只把平生一片丹. ⁵⁰⁾

己卯士禍 후, 출사하는 회재의 마음이다. 총 20수로 된 시인데, 마지막 연이다. 기묘사화는 사림과 조광조가 훈구파의 세력을 견제하려다 오히려 역공에 말려 賜死된 士禍이다. 회재 24세 때,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을 당시 慕齋 金安國이 考官이었는데, 회재의 策文을 보고 ‘王佐의 才’가 있다고 감탄까지 할 정도였다. 을묘사화는 그런 모체가 파직이 된 사건이었다. 회재가 살았던 시기가 4대 사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회재가 16세가 되던 해(1506)에는 中宗反正이 일어났다.

金安國은 金宏弼의 문인으로, 趙光祖·奇遵 등과 함께 사림파의 선도자가 되었다. 1501년(연산군7) 생원·진사과에 합격하고, 1503년에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1507년(중종2)에는 문과 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여러 관직을 역임한 뒤 1517년 경상도 관찰사로 파견되어 각 향교에 『小學』을 권하고, 『農書諺解』·『二倫行實圖諺解』·『呂氏鄉約諺解』 등의 언해서와 『辟瘟方』·『瘡疹方』 등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으며, 향약을 시행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교화에 힘썼다. 그러나 1519년 기묘사화 때 파직되었다. 회재 자신을 조정의 관리로 이끌어 준 考官인 김안국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는데도, 회재는 중종의 그릇된 정치를 지적하기보다는 조부의 3년 喪을 마치고 조정에 다시 출사할 수 있

50) 李彦迪, 『晦齋先生集』 卷1, ‘古今詩’, <辛巳秋西征吟>(신사년(1521, 중종16) 가을의 서정음) 戊寅年, 丁祖父憂, 庚辰冬服闋, 是年秋, 除校書博士赴洛.(무인년(1518)에 조부 喪을 당하여 경진년(1520) 겨울에 삼년 喪을 마치고, 이해 가을에 교서관 박사에 제수되어 한양으로 올라갔다.)

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회재의 이 같은 태도는 유자의 처세 곧 자연관으로서의 선비정신에는 문제점이 있다. 의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당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룻밤 숲 속에서 맑은 꿈을 꾸고 나서,	一夜雲林魂夢清,
다시 맑은 시내 찾아 먼지 묻은 갓끈 씻네.	重尋碧澗濯塵纓。
오래 앉아 읊조리며 돌아가길 잊었더니,	沈吟坐久忘歸去,
산빛도 헤어짐을 아쉬워만 하는 듯.	山色依依亦有情. ⁵¹⁾

회재가 1527년(중종22) 1월 사직하고 귀향한 뒤, 7월 다시 시강원 문학에 제수되어 상경하는 사이에 지은 시이다. 세상을 등지고 싶지만 등질 수 없는 회재의 모습이 엿보인다. 다시 출사한 회재는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며 불의에 항거하는 면도 보였다. 그 사건으로 탄핵받아 낙향하기에 이르렀다.

푸른 나무로 덮인 마을엔 한 줄기 맑은 연기,	一抹清煙綠樹村,
푸른 산 아래에는 천 층의 짙은 안개.	千層濃霧碧山根。
절경을 바라보매 참 흥취가 더해지니,	望中奇勝添眞興,
물외의 강산 또한 君主의 은혜로다.	物外江山亦主恩. ⁵²⁾

위의 시는 회재가 41세이던 1531년(중종26) 낙향 후 지은 시이다. 대체로 『회재선생집』 권2는 1531년 파직되어 낙향한 후 1537년 조정에 복귀

51) 李彦迪, 『晦齋先生集』 卷1, ‘古今詩’, <定慧寺話別>(정혜사에서 작별하며)

52) 李彦迪, 『晦齋先生集』 卷1, ‘古今詩’, <登前峯觀望>(앞산에 올라서 바라보다) 辛卯春. 以司諫罷還江鄉(신묘년(1531, 중종26) 봄에 사간으로 있다가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2수 중 제2수.

하기까지의 작품이 실려 있다. 위의 <登前峯觀望>은 앞산에 올라 비 그친 후의 산뜻한 산의 모습과 안개가 피어나는 산촌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고 하여, 戀君之情을 노래한 것이다.

다음 시는 회재가 낙향한 지 4년째 되던 해(1534년, 44세), 지은 시이다.

말 위에서 <양보음>을 길게 노래 부르니,	馬上長歌梁甫吟,
인간 세상에 마음 열어 보일 곳 없네.	人間無處可開襟。
한 해도 다 저물어 산들은 메마르고,	蒼茫歲暮千山瘦,
흐느끼듯 샘 흐르니 한 줄기 길이 깊네.	鳴咽泉鳴一路深。
반평생 기구하게 험한 일들 겪었어도,	半世崎嶇多涉險,
만백성의 삶에 아직 마음이 쏠려 있네.	萬方休戚尙關心。
시내 따라 느지막이 평지로 나왔는데,	沿溪日晏通平坦,
십여 리 어촌 길에 달빛이 숲에 가득.	十里漁村月滿林。 ⁵³⁾

여전히 세상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 <양보음>은, 諸葛亮이 蜀漢의 劉備를 만나기 전 泰山 아래 梁甫山에 있을 때 불렀다는 노래로,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재주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비통해하는 내용이다. 회재도 제갈량처럼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재주가 있는데, 이 재능을 알아주는 이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다.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산은 메마르고 그 산길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내 마음인 양, 흐느끼듯 울고 있다. 반평생 환로의 고단함에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그래도 만백성을 향한 이내 마음을 끊을 수가 없다. 애민정신을 통한 정치를 다짐하니 길도 평지로 보이면서 십리 길에 달빛이 환히 비추주고 있다. 회재가 품었던 목민관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회재는 이 시에서 어디에 처해도 현실

53) 李彥迪, 『晦齋先生集』 卷2, '律詩, 絕句', <山行卽景>(산길을 가며 경치를 읊다)

을 잊지 못하는 선비정신으로서의 유가의 자연관을 보였다.

드물지만 愛民思想이 드러난 시도 있다. 낙향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지은 시로, <林居十五詠> 중 2수이다.

농가에서는 해마다 가뭄을 근심하고, 근래에는 숲 속에 샘물마저 말랐네. 野人은 幽人의 마음 몰라주고, 청산에 불을 놓아 화전을 만드네.	農圃年年苦旱天, 邇來林下絕鳴泉。 野人不識幽人意, 燒盡青山作火田。
--	--

밤사이 격자창에 빗소리가 요란하니, 나그네 놀라 깨어 기뻐하며 듣는구나. 이로부터 이 땅에 큰 가뭄이 없으리니, 幽人은 바위 구름 아래 누워 지내리라.	松檣一夜雨聲紛, 客夢初驚却喜聞。 從此青丘無大旱, 幽人端合臥巖雲。 ⁵⁴⁾
---	---

회재가 낙향하여 지내던 동안 가뭄이 심했던가 보다. 근처 샘물마저 마르는 심각한 상태에서 농부들은 삶을 위해 화전밭까지 일궈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밤 사이에 비가 내렸고 그 빗소리에 잠은 깨었지만, 그래도 해결하기에 충분한 비이기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로 戀君之情을 노래한 작품이 있다.

가을날 모래밭에 술상 놓고 마주하니, 만물의 榮枯盛衰 본래 한 이치로다. 눈앞의 구름 산이 모두 세속 밖이거니, 온 강의 바람 달은 또한 君主 은혜로다.	沙頭歲晚對芳樽, 萬類榮枯本一元。 入眼雲山俱物外, 滿江風月亦君恩。 ⁵⁵⁾
--	---

54) 李彦迪, 『晦齋先生集』 卷2, '律詩, 絕句', <林居十五詠> '悶旱'(가뭄 걱정)과 '喜雨'(비를 기뻐하다)

위의 시는 <江上對酌偶吟 示座中諸君> 3수 중, 세 번째 연이다. 가을 날 백사장에서 술상을 마주하고 바라본 구름과 강산 곧 전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여 자연에 몰입된 경지로, 눈앞의 구름 산이 모두 세속 밖이라는 도가적 풍류의 정서를 드러내면서도 ‘亦君恩’이라 하여, 유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았다.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것 역시 임금의 은혜라고 끝을 맺음으로써 유자의 충절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표현은 조선 전기 유자들의 일반적 수사법으로 江湖歌道の 전형적 표현이다. 조선 초 樂章인 <感君恩>과 時調 작품인 孟思誠의 <江湖四時歌>, 그리고 歌辭 작품으로 宋純의 <俛仰亭歌> 등에서도 강호가도라 할 수 있는 “亦君恩이샀다”라는 표현이 있다.

애민사상이 구체화된 시도 있다.

영남에서 우연히 함께 노닐었는데,	嶺外風煙偶共遊,
저무는 강 머리에 이별 시름 밀려오네.	離愁段段暮江頭.
상서로운 세상 나는 그대는 봉황인 듯,	翱翔瑞世君如鳳,
호탕하게 機心 잊은 이 몸은 白鷗인 듯.	浩蕩忘機我似鷗.
고향에서 채무 추니 봄이 실로 풍성하나,	彩舞南洲春正富,
대궐 향한 충심은 세월 감에 놀라도다.	丹心北闕歲驚逾.
입궐한 뒤 성상께서 민생을 물으시면,	朝天若賜蒼生問,
기근 질병 이어져서 떠도는 자 많다 하길.	饑癘連年太半流. ⁵⁶⁾

潛庵 金義貞(1495~1547)을 전송하면서 지은 시이다. 김의정은 1526

55) 李彥迪, 『晦齋先生集』 卷2, ‘律詩, 絕句’, <江上對酌偶吟 示座中諸君>(강가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읊어 좌석의 제군들에게 보인다)

56) 李彥迪, 『晦齋先生集』 卷4, ‘七言律詩’, <送玉堂金正字義貞 時罷在林泉>(홍문관 정자 김의정을 전송하다 이때 파직되어 향리에 있었다.)

년 별시에 합격하여 시강원 사서로 조정에 있었으나, 1531년 김안로 파에 의해 파직되었다가 1537년 김안로가 처형되자 다시 출사하였다. 위의 시는 회재가 그때 지은 준 것이다. 회재와 함께 김안로 파에 의해 파직된 후, 영남에서 우연히 만나 노닐기도 하였는데 지금 그대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떠난다. 재출사한 김의정은 봉황 같고, 부름을 받지 못한 자신은 忘機한 갈매기인데, 임금에 대한 충성심만은 세월감에 더욱 더 굳건해진다. 그리고 만약 임금께서 민생을 그대(잠암)에게 물어본다면, 기근과 질병으로 유리걸식하는 백성들이 많다고 전해 달라고 하였다. 愛民精神의 표현이다.

김안로가 敗死된 후, 중종이 회재의 충직을 생각하여 서용 복직을 명하였다. 그때(47세) 지은 시로, “음 다하고 양 돌아와 만물에 봄이 오니, 애써 쇠한 몸 이끌고 흥진으로 들어가네. 군주를 도울 재주 없다고는 말을 마라, 한 조각 붉은 충심 늙을수록 새로우니.”⁵⁷⁾라고 하여, 임금에 대한 충절은 늙을수록 더 깊어진다고 하였다.

다음 시는 <次李進士定之韻> 3수 중 제3수로, 회재가 1541년(중종 36) 여름에 휴가를 받고 고향 집에 내려와 있다가 지은 것이다.

올봄에는 가뭄으로 보리농사 흉작인데,	今春不雨大無麥,
모내기를 못한 곳이 많아 또 걱정이네.	又悶西疇少插秧.
부끄럽게 능력 없는 몸이 시종 직책 맡아,	自愧空疏忝侍從,
흉년에 유랑민을 구휼해 줄 방책 없네.	凶年無術撫流亡.

57) 李彦迪, 『晦齋先生集』 卷3, ‘律詩, 絕句’, <丁酉冬 上洛贈鄉友> 十一月, 金安老 敗死, 十二月, 承召命赴闕.(정유년(1537, 중종32) 겨울에 한양으로 올라가며 고향 벗들에게 주다. 11월에 金安老가 伏誅됨에 따라 12월에 소명을 받들고 대궐로 나아갔다.) “陰盡陽廻萬物春, 強將衰朽入紅塵. 莫言輔主無才調, 一片丹心老更新.”

가뭄으로 봄보리 농사는 물론이고 모내기까지 못한 곳이 많다. 그런데 명색이 목민관로서 이런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길이 없음을 자책하는 애민정신을 드러내었지만, 소극적 자세이다.

『晦齋先生集』卷4에는 1547년 윤 9월 경주에서 강계로 유배 가던 도중에 지은 시로 시작하여, 유배 생활하는 동안 지은 시까지 모두 36제의 시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어머니와 아우, 그리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다.

늘그막에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는데,	衰年遠別各西東,
소식마저 끊어지니 그리움이 한없어라.	雁斷魚沈思不窮.
잔설이 있는 유배지에 봄은 깊어 가건만,	殘雪異鄉春欲暮,
시름겨운 혼은 그댈 꿈에서도 못 만나네.	愁魂中夜夢還空.
군신 사이 가로막혀 붉은 마음 찢어지니,	丹心破盡君臣隔,
흰머리로 어머님과 함께 할 날 언제일까?	白首何時母子同.
달을 보니 천리 밖에 떠난 한이 깊어,	見月難消千里恨,
고개 돌려 대궐 쪽을 바라보며 슬퍼하네.	回頭心折五雲重. ⁵⁸⁾

아우와의 소식 단절로부터 시작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 등 유배지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 유배지인 강계에도 봄은 왔는데, 군신 사이에는 가로 막혀 나의 충절을 전할 길이 없다. 군주에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고향의 어머님과 아우에 대한 그리움으로 밝은 달만 바라보며 마음 아파할 뿐이다. 이처럼 유배지에서 느끼는 형제애와 모정 그리고 연군지정까지 유자가 지녔던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삶의 모

58) 李彦迪, 『晦齋先生集』卷4, ‘西遷錄’, ‘律詩, 絕句’, <次舍弟韻>(아우의 시에 차운하다)

습이 유자들의 현실이면서 자연이기 때문이다.

愛民精神이나 戀君之情 그리고 귀양지에서 그의 저술 활동도 유가의 자연관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유자는 어디에 처해도 현실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우리 임금이 성군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먼 곳으로 유배된 지 이미 일곱 해,	投荒已七載,
변방 성에 또 봄이 저물어 가네.	邊徼又殘春.
임금님 그리워서 찢기는 충심,	戀闕丹心破,
고향을 생각하니 묵은 풀은 새로우리.	思鄉宿草新.
백발노인 슬퍼 눈물 뿌리던 때에,	白頭揮慘淚,
붉은 인끈 깊은 仁을 베풀어 쫓지.	朱紱遇深仁.
술잔 들고 속마음을 털어놓던 날,	杯杓開襟日,
두터운 공의 뜻을 알게 되었다오.	知公厚意眞. ⁵⁹⁾

강계 부사로 있었던 張國卿이 의주 목사로 부임하는 것을 전승한 시로, 기나긴 유배생활에 더욱 생각나는 임금이요. 유배생활이 어려울 때, 고을 수령인 장국경이 특별히 돌봐주었다는 것이다. “붉은 인끈 깊은 仁을 베풀어 쫓지”의 ‘붉은 인끈’은 관리의 印章에 다는 것으로, 장국경을 가리킨다. 곤경에 처해 있는 회재 자신을 고을 수령인 장국경이 보살펴 주었는데,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는 이야기에 그의 두터운 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友義도 유가의 자연관이다.

유배 생활 동안 지은 시에는 지날 칠 정도의 戀君之情의 시가 많다. 유배지에서 오는 단절감 때문에 오는 심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연군을 하다든지 충절을 맹세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평을 들을 수 있

59) 李彥迪, 『晦齋先生集』 卷4, ‘西遷錄’, ‘律詩, 絕句’, <送張國卿之任義州 癸丑閏三月>(의주로 부임하는 장국경을 전승하다 계축년(1553, 명종8, 윤3월)

다. 왜냐하면 참된 유자는 전통적인 유가의 출처관에 따라 ‘權道’를 행하면서 벼슬할 만한 때만 벼슬자리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유배시절은 어린 명종의 등극으로 문정왕후의 수렴정청과 외척인 소윤의 득세로 세상에 道가 행해지지 않을 때였다. 이는 끝내 出仕하지 않은 화담과 남명과는 대조되는 점이다. 최옥너는 『회재 이언적의 출처 사수관』에서 ‘權道’를 실행하였다⁶⁰⁾고 하였는데, 이는 회재의 삶을 자세히 살핀 후 내려야 할 결론이어야 했다. 그의 출처관은 ‘권도’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회재가 강계의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지은 『구인록』·『대학장구보유』·『중용구경연의』 등은 현실을 잊지 않고 經世之治를 이루기 위해 쓴 책들이다. 이들의 저술 활동과 회재가 지난 날 부임지에서 『一綱十目疏』를 올린 일과 충순당 인견 후 어린 명종에게 올린 『政府書啓十條』 등을 통해서 현실 정치가 바로잡힐 수 있게 한 것도 유가의 자연관으로, 현실을 잊지 않는 자세이다.

4. 結論

晦齋·花潭·南冥 세 분은, 16세기 초 주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립되던 시대에 살았던 儒者들이다. 한편으로는 조선의 조정이 훈구파와 사림파로 갈등하여 士禍로 점철된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인물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사회라는 혼란기에 살았던 회재의 삶을 통해 儒家의 自然觀에 따라 그의 삶은 정당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다.

晦齋는 20대에 『問津賦』를 지어 儒者의 적극적인 현실관을 보였으며,

60) 최옥너(2010), 앞의 논문, 98쪽.

『敬身箴』에서는 出處의 기준은 의리로써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己卯士禍(1519)가 일어난 후, 2년 뒤 중종은 조부의 喪으로 낙향해 있던 회재를 재등용하였다. 기묘사화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과의 신진사류들이 훈구파에 의해 숙청된 사건이다. 조광조는 중종 반정의 공신 76명의 공신 삭탈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중종은 반정을 반역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의심하여, 훈구파가 사림과 신진사류들을 몰아내게 내버려두었다. 이때 再出仕한 회재는 『이운오취탕론』을 지어 그 당시 출사에 임하는 심경을 남겼다. ‘이운처럼 우리 임금을 요순이 되게 하고 백성은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출사의 동기였다. 화담과 남명이 처사로 지냈던 것에 비해, 회재는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사회를 겪은 뒤에, 조정에 복귀한 일이 과연 유가에서 말하던 의리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되짚을 볼 필요가 있다. 이후 회재는 10년 동안 조정의 여러 벼슬자리를 역임하다가 10년 차에 훈척 김안로의 기용을 반대하다 탄핵을 받고 파직되어 낙향하게 되었다.

또한 회재는 乙巳士禍(1545) 때 문정왕후와 소윤인 윤원형이 주도하여 사림을 죄주는 忠順堂 引見에 참여하였으며, 충순당 모임 후 判義禁府事의 직을 맡아 추관으로 소윤의 반대파인 관리들을 심문하였다. 그 공으로 靖難衛社功臣에 錄勳되어 驪城君에 封해졌다. 이와 같은 회재의 행적은 유가의 출처관에 정당했는지 의문이 든다. 남명을 비롯한 율곡과 래암도 이런 면에서 그의 출처관을 비판하였다. 道가 서지 않은 나라에는 벼슬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조정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참된 儒者들이 지녔던 출처관이기 때문이다. 道가 서지 않은 조정에 나아갔을 경우 능력이 미치지 못해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회재는 곧바로 정난위 사공신과 여성군에 봉해진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사양하기는 하였다. 이를 율곡은 권간들에게 죄를 얻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혹평하였다.

회재의 시문학에 나타난 유가의 자연관은 戀君之情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형제에 등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아우를 그리워하는 시는 30여 편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낙향과 유배 생활 동안 지나친 戀君은 明哲保身の 이미지로 비취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유배 시절은 권간들이 득세하던 시기로, 道가 바로서지 않아서 참된 유자라면 출사를 꺼리던 때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쉬운 점은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소재로 한 현실 참여적인 시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16세기 유자들의 시문학에 나타난 한계점이기도 하다.

16세기 초 주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되기 전에 삶을 살았던 회재는, 花潭과 南冥처럼 현실 정치를 떠난 채 산림에 은거하지 않고 출사의 기회가 오면 세상을 위해 나아가기도 하였다. 出仕한 회재는 자신이 처음 지냈던 요순시대의 정치론이 현실 정치에 적용되지 못하고 내침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낙향과 유배 생활에도 결코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려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의 군주를 성군되게 하기 위해 저술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런 회재의 모습도 16세기 초 유자가 지냈던 유가의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無道한 시절에는 出仕하기보다는 處士의 삶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재는 처사의 삶보다는 출사의 길을 택하였다. 그러나 출사한 후, 그의 행적은 참된 유자로서의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간신의 등용을 반대하다 파직된 경우와 유배지에서의 저술 활동 등은 그가 지냈던 소극적 자세의 현실 참여적 태도라 할 수 있다. 동시대 處士로 삶을 살았던 花潭과 南冥보다는 벼슬살이를 한 회재가 표면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가 조정의 요직에 있으면서 바른 정치를 실현했는가는 한 번쯤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가 벼슬자리에 있을 때도 道가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士禍의 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꼭 出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일부의 處士처럼 산림에 은거 하면서도 바른 소리를 내어 현실 정치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출사한 회재는 현실 정치의 개혁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士禍에 걸려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따라서 시문학을 통해 본 회재의 삶은 결과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이 처음 지녔던 요순시절의 태평성대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 당시 유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 면은 있었다. 한편으로는 儒家의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儒者의 정신에 따라 ‘時中의 道’를 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參考文獻

1. 基本 資料

『韓國文集叢刊』

李彥迪, 『晦齋先生集』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11, '書' 『答李仲久 別紙』

曹植, 『南冥集』, 「雜著」, 「解關西問答」

李珣, 『栗谷全書』 卷14, 「晦齋大學補遺後議」

李珣, 『石潭日記』(上)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卷15, '雜著' 「大學章句補遺」

柳成龍, 『晦齋先生文集』 卷14, 附錄, 「恭書御札答館學諸生疏後」

盧守愼, 『蘇齋先生文集』 卷7, '跋'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

趙綱, 『龍洲先生文集』 卷12, '跋' 「書晦齋先生大學補遺後」

崔象龍, 『鳳村集』 卷12, 「附大學補遺辨疑」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 『論語』, 藝文印書館, 1979.

『孟子』·『大學』·『中庸』, 景文社, 1979.

『書經』, 「說命」(上)

『後漢書』 卷39, 「劉趙淳于江劉周趙列傳」

『宋史』 卷3, 「太祖本紀」2

2. 論著

강경림, 「회재 이언적의 철학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1~168쪽.

金東協, 「李滉이 지은 行狀을 통해 본 그의 出處觀과 人生觀」, 『東方漢文學』제 18집, 東方漢文學會, 2000, 101~119쪽.

金洛眞, 「晦齋 李彥迪의 心性論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1~92쪽.

金淵浩, 「晦齋 李彥迪의 詩에 나타난 自然觀」,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91, 1~106쪽.

金時杓, 「晦齋 李彥迪 漢詩 研究」, 『漢文學研究』 2, 啓明大學校 啓明漢文學會, 1984, 57~96쪽.

- 김진성, 『회재 이언적의 철학사상 연구 : 『대학장구』개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0, 1~210쪽.
- 南恩暻, 『晦齋의 山水詩에 나타난 朱子와 莊子의 이중적 영향』, 『연구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7~29쪽.
- 大東文化研究叢書XI,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2, 1~429쪽.
- 默民記念事業會 編, 『晦齋 李彥迪의 哲學과 政治思想』, 博英社, 2000.
- 손승호, 『회재 이언적의 철학사상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6, 1~157쪽.
- 宋載邵, 『晦齋의 自然詩』,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2, 195~218쪽.
- 尹寅鉉, 『花潭과 南冥의 學風 및 文學적 특성』, 『시학과 언어학』 제26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4, 63~94쪽.
- 윤인현, 『송강 정철의 한시에 나타난 작법과 유자의 자연관』, 『한국고전연구』 3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171~210쪽.
- 윤인현, 『晦齋 李彥迪을 통해본 16세기 전기 조선의 思想的 특성』, 『大東漢文學』 제47집, 大東漢文學會, 2016, 203~241쪽.
- 李東歡, 『晦齋의 道學的 詩世界』,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2, 164~193쪽.
- 李東熙, 『晦齋 李彥迪의 생애와 사상』, 『韓國學論集』19,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92, 143~163쪽.
- 이두원, 『회재 이언적의 도학사상과 도학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1~64쪽.
- 이영호, 『晦齋 李彥迪의 哲理詩에 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93, 1~73쪽.
- 李志慶, 『李彥迪의 政治思想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1999, 1~201쪽.
- 이정화, 『晦齋 李彥迪의 正心詩 研究』, 『退溪學論叢』 제23집, 退溪學 釜山研究院, 2014, 65~85쪽.
- 李泰鎭, 『李晦齋의 聖學과 仕宦』, 『晦齋 李彥迪의 哲學과 政治思想』, 博英社, 2000.

- 장도규, 『회재 이언적의 시세계』,檀國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89, 1~86쪽.
- 장도규, 『晦齋 李彥迪 文學 연구』,京畿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 논문, 1994, 1~155쪽.
- 장도규, 『회재 이언적의 시문학적 지향 일고』, 『한국사상과 문화』 제72집, 수덕문화사, 2014, 33~56쪽.
- 張都圭, 『晦齋 李彥迪 文學 研究』, 國學資料院, 1999, 1~396쪽.
- 鄭堯一, 『儒家의 自然觀』 『語文研究』 제148號,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0, 425~442쪽.
- 趙昌奎, 『濂洛風 漢詩로서의 林居詩 研究』: 회재와 퇴계를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제30집, 大東漢文學會, 2009, 225~255쪽.
- 조창열, 『회재 이언적의 경학사상 연구: 주자의 「대학」, 「중용」 주석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1~124쪽.
- 조창열, 『회재 이언적의 경학사상』, 한국학술정보(주), 2008, 1~168쪽.
- 최옥녀, 『晦齋 李彥迪의 出處 辭受觀』, 『유교문화연구』 제16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2010, 97~122쪽.

ABSTRACT

Features of Confucian Scholars seen through Hoejae Lee Eon-juk's View of Nature in the Early 16th Century

Yun, In-hyu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scuss the life of Hoejae(晦齋) Lee Eon-juk(李彦迪, 1491~1553), who laid the foundation of Neo-Confucianism in Joseon in the early 16th Century through the view of the Chulcheo (a government post and seclusion) and the Confucian scholars' view of nature based on the writings of Hoejae. It particularly discussed whether Hoejae's view of the Chulcheo was fair based on the Confucian scholars' view of the Chulcheo or he pursued government post anytime for his own success and honor. King Jungjong reinstated Hoejae, who was back in his hometown due to his grandfather's funeral, two years after Gimyosahwa(1519) where the Sarim party of scholars, including Cho Kwang-jo, was sacrificed. His 『Iyunochwitangnon』 describes how he felt when he accepted the posts. He stated he accepted the posts to work as Lee Yoon and make the king as great as Yao-Shun for the people to flourish in peace and prosperity as the time of Yao-Shun. During Elsa-Sahwa, he participated in Chungsoondang where Queen Munjeong and Soyoon punished the Sarim party and tried the officers as Panuigeumbusa (head judge) to be recorded as Jeongnanwisagongsin and appointed to Yeoseonggun. This behavior of his was not just considering the Confucian view of the Chulcheo. Later, Hoejae refused the titles of Jeongnanwisagongsin and Yeoseonggun as he realized it was wrong.

The view of nature reflected in Hoejae's poetry was expressed as his sadness for not being able to care for his parents, how much he missed his family, and his love for his brother. He submitted the resignation letter several times to take care of his mother and volunteered to work at a local office near his hometown. He also wrote about 30 poems about

his younger brother. Not only that, his loyalty to the king and concerns for the kingdom also reflected the Confucian scholars' view of nature. However, he wrote almost no poem on the hardships of the commoners. This would be the limitation of poetry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16th Century.

As Zixia said in the Chapter of Great Virtue, Book of JaJang(『子張』), "Small virtue may enter if the great virtue does not deviate from its boundary," Hoejae has several reasons to be acknowledged from a positive view considering the philosophy trends of his time and that Toegye said in Haengiang that "The Chulcheo is right for the integrity defended with life for the great cause."

Key Words Hoejae Lee Eon-juk, View of the Chulcheo, Loyalty, Confucian Scholars' View of Nature, Mother, Love for Brother, Good Son, Great Cause.

논문투고일 : 2016.7.14
심사완료일 : 2016.8.8
게재확정일 : 2016.8.18